



“전국 국공립합창단 실상은 기독교단체”

불교음악원 국공립합창단 조사
 연주곡 결정권 가진 지휘자들
 신학대학 교수·교회 출신이 다수
 국공립합창단 찬송가 공연 배경

정부와 지자체가 ‘음악과 예술을 통해 국민의 문화적 향유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국공립합창단이 실상은 “기독교 단체였다”는 보고서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전국 국공립합창단의 공연주제와 선곡 등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상임지휘자가 신학대학에서 교회음악을 가르치는 교수이거나 특정교회의 지휘자 출신들이란 것으로 드러났다. 국공립합창단이 기독교 찬양 일색의 공연으로 지속적인 논란을 일으킨 것도 자신의 종교신념과 공공합창단 지휘자로서 지켜야 할 직업윤리를 망각한 이들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계종 사회부와 종교평화위원회는 9월 30일 조계종 불교음악원(원장 박범훈)이 국공립합창단을 비롯해 서울·인천·수원 춘천·원주·정주·아산·전안·대전·대구·구미·부산·창원·전주·정읍·광주·목포 시립합창단과 제주도립 서귀포합창단 등 전국 19개 국공립합창단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올해 5월 법보신문이 국립 및 대구·부산시립합창단의 종교편향 공연과 관련한 보도로 큰 논란이 일자 조계종 총무원이 대책 마련을 위해 조계종 불교음악원 내 한국불교음악학회에 의뢰해 전국 국공립합창단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이번 조사는 국내외에서 동서양 음악을 전공한 학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국 19개 국공립합창단의 최근 4년(2018년~2021년 6월)간 공연목록을 조사해 선곡 현황 및 상임지휘자의 종교성향 등을 분석했다.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전국 19개 국공립합창단의 예술감독 및 상임지휘자 대다수가 교회음악 전공 내지 개신교 합창단 지도자 출신이라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립합창단장 및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상임지휘자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찬양대 지휘자라도 활동했다. 2017년 국립합창단장 겸 예술감독으로 부임했으며 지난해 11월 재임용됐

다. 국립합창단이 2000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재단법인으로 재발족한 이후 단장이 재임용된 사례는 그가 처음이다.

나머지 18개 시립 및 도립합창단의 상임지휘자들도 기독교 편향 일색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원주·정주·아산·전안·구미·부산시립합창단과 제주도립 서귀포합창단 상임지휘자는 총신대, 서울신학대, 장로회신학대 등 기독교재단이 설립한 대학에서 교회음악과 교수로 활동하거나 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인천·수원·춘천·전주·정읍·목포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는 미국 웨이커 메모리얼 장로교회, 꿈의교회, 사랑의교회, 한신교회 등에서 교회찬양대 지휘자로 활동했던 전력이 있으며, 창원·광주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는 한국교회음악협회 임원 출신이다. 대구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는 올해 5월 기독교 찬양 연주로 큰 논란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공연 선곡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임지휘자들이 대다수 개신교 성향의 인사들로 선임되다 보니 국공립합창단의 공연 곡도 기독교 찬양 일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합창단의 경우 4년간 99회에 걸친 정기 및 전국 순회 공연 가운데 평균 50% 이상을 기독교 찬양곡으로 편성했다. 2018년 13개의 지역 순회공연 가운데 서산, 목포, 포항, 평택, 제주, 김천, 여수에서 각각 열린 순회공연에서는 전국이 기독교 찬양곡으로 편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립 및 도립합창단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지역에 따라 약간의 편차가 있지만 상당수 시립합창단이 매 공연마다 전국 혹은 절반 이상을 기독교 찬양곡으로 구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공립합창단의 종교편향 사례가 간헐적으로 알려져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종단 차원에서 조사를 의뢰했던 것”이라며 “조사결과가 매우 충격적이다.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공직자 종교편향 예방교육, 예술단 부무규정 강화, 소통창구 개설 등 다각적인 개선책을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6편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김내영 기자 ny27@beopbo.com



한국불교 중흥의 초석 다짐하며 천릿길 오르다

상월선원 만행결사는 10월1일 조계총림 송광사에서 임제식을 갖고 삼보사찰 천리순례의 첫발을 땀다. 순례는 송광사를 시작으로 해인총림 해인사를 거쳐 10월18일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회향한다. 비구 48명, 비구니 6명, 우바새 14명, 우바이 26명 등 총 94명이 순례대중으로 동참했으며, 방역, 의료 담당 등 의회대중까지 120여명이 참여했다. ▶ 관련기사 3편

비구니회, 광주시 가톨릭순례길 대책위 만든다

좌담회·특강·포럼으로 문제 점검
 중대한 역사 왜곡에 적극 대응
 “편향막아 종교 화합 이룰 것”

전국비구니회가 경기도 광주시의 가톨릭 성지순례길 조성을 심각한 역사 왜곡으로 규정하고 대책위 결성을 추진한다. 전국비구니회는 남한산성과 천진암 등을 포함시킨 광주시의 가톨릭 성지순례길 조성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특별강연과 포럼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사 사례에 대한 감시와 역사 왜곡 현장 답사를 병행해 재발 방지와 올바른 인식 확산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 스님)는 10월 14일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집행부와 종진급 비구니스님들이 참석하는 좌담회를 갖고 광주시가 추진하는 가톨릭 성지순례길 조성 사업에 대한 내용 공유와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광주시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가톨릭의 불교 역사 지우기에 대한 대책위원회(가칭, 이하 대책위)’ 결성을 제안, 지속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

정이다. 전국비구니회는 대책위 결성을 통해 천진암·주어사 등 현재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불교유적에 대한 현장 답사와 함께 불교와 가톨릭 역사의 접점, 근현대 사찰 등을 중심으로 벌어진 가톨릭과의 관련성에 대한 학술연구 등을 병행해 올바른 역사 인식과 관심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어 10월26일 오후 2시에는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위원장을 전국비구니회관으로 초청해 ‘가톨릭의 역사 왜곡과 말살’을 주제로 특강을 갖는다. 특강은 전국비구니회가 주관하는 ‘제7차 수행결사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선착순 현장 동참과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을 통한 비대면 참여도 가능하다.

11월29일에는 포럼도 계획돼 있다. 주어사와 천진암을 중심으로 진행된 근현대 성지조성 사업의 형태와 이들 사찰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학술적으로 조명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전국비구니회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장 수경 스님은 “광주시의 가톨릭 성지순례길 조성 사업으로 불교계의 역사와 유적이 왜곡되는 이번 사태는 통탄스러

운 동시에 우리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사태가 벌어지기까지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우리의 역사를 올바르게 밝히고 타종교계와 지자체에 의해 어떻게 역사 왜곡, 침탈이 자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공감하기 위해 특강과 포럼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비구니회는 이번 사태뿐 아니라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개선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전국비구니회는 이번 사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지속적 대응이 가능한 조직을 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님들은 조선 500여년의 탄압 속에서도 불법을 계승하고 불자들의 신행을 올바르게 이끌어온 지력을 갖고 있기에 갖는 역사적 의미를 학술적으로 조명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 관련기사 7편
 남수연 기자 namsy@beopbo.com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 대통령 표창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이 9월27일 ‘제48회 관광의 날’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최한 2021 관광진흥 공정부포상 전수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원경 스님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을 이끌며 국내외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 극복에 힘쓴 공로로 이번 대통령 표창 수상으로 선정됐다. 특히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으로 국민 심신치유에 힘쓰고, 다양한 사회공헌 및 나눔 프로그램으로 우리 사회 발전과 회복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원경 스님은 “전국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 주지스님과 지도법사, 실무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향후에도 국민을 대상으로 더욱 양질의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것은 물론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대응 의료인과 방역관계자, 소상공인 및 여행업계, 문화예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공익 템플스테이도 더욱 활발히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개산 1376주년

개산대재

천년의 문화를 함께 나누다

10월 9일 영축삼보 이운, 패불헌공, 숲속작은 음악회

10월 14일 영고재, 개산대재 법요식, 부도 헌다례

2021 9.18(토) ~ 10.17(일)

※ 모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됩니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Tel 055)382-7182 Fax 055)382-7196 www.tongdosa.or.kr